차 례

제 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에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자면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폭넓고 깊이있게 담겨져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어떤 력사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충실성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수십년동안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력사입니다.

특히 우리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내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할 때 소년단원들은 우리 장군님이 세상에서 제일이시라는것을 잘 알고 장군님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습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자신을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가장 큰 행복이였으며 전세계적인 사변이였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던 시기는 온 세상 곳곳에서 인민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짓밟으려는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제날강도놈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을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싸워오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원쑤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꼭 찾을 큰 싸움을 준비하고계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나라를 찾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이고 더없는 영광이였으며 민족의 크나큰 경사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인민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서로서로 얼싸안으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땅이 울리도록 환호성을 터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주변과 국내각지의 아름드리나무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알리는 글발들을 새기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아름드리나무들에 새긴 구호문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송시를 지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백두산밀영에 세운 송시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16일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축하하여 다음과 같은 송시를 지으시였습니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은 경애하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향도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대경사였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찬란한 앞날을 약속해준 뜻깊은 사변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가장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이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아버님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혁명적가정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버님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대원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려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로지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를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나가도록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은 아버지대원수님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일가는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 싸워온 위대한 혁명일가, 애국일가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관디엔(관전)회의를 지도하시는 할아버님이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를 운반하여오시는 할머님이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이십니다.

할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촌이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분)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은 일찍부터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적들에게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은 반일독립운동에 한몸 바치신 반일애국투사이시였으며 외삼촌들이신 김기준, 김기송선생님들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최후를 마친 열렬한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남달리 뛰여난 천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백두산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지혜롭고 총명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셈세기**공부를 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느날 유치원셈세기공부시간에 선생님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것을 가르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신 장군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어제 진흙을 빚어 땅크를 만들면서 내가 빚은 진흙덩이에 동생이 빚은 진흙덩이를 합치니 하나가 되였고 꽃밭에 물을 줄 때에도 먼저 떨어진 물방울에 다른 물방울이 합쳐져 큰 물방울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그저 하나가 되는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굉장히 큰 하나가 됩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우리 어머님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인민의 힘은 아무리 합쳐도 하나가 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시면서 한마음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깊은 관찰력과 탐구심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닭이 물을 먹을 때 왜 머리를 쳐드는가를 관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가을 어리신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함경북도 경성군에 가시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닭에게 모이를 주시다가 닭이 물을 먹을 때 주둥이를 쳐드는것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시여 닭들을 유심히 살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닭이 물을 물고 인차 주둥이를 곧추 쳐드는것은 물을 빨아먹지 못하기때문에 목을 쳐들어 물이 입안으로 흘러들게 하기 위해서라는것을 알아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대담하시였으며 통이 크게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무엇을 하나 생각해도 담대하고 통이 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로동자들이 처음으로 철로 만든 배를 보시면서 앞으로 더 크고 훌륭하게 만드실 꿈을 키우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만경봉에 오르시여 평양쪽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10층, 20층, 50층, 100층짜리 높고 훌륭한 집도 짓고 만경봉에서 평양까지 무지개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게 할 담대하고 통이 큰 궁냥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동무들을 사랑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소박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였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중한것이라도 서슴없이 넘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따발총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어리신 장군님께 멋진 놀이감따발총을 사다드렸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어머님께 동무들과 미국놈쏘기놀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달려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빈손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시며 따발총을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다 부러워하기에 모두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도마도를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따발총과 도마도만이 아니라 동무들에게 자신의 옷도 입혀주시고 여러가지 놀이감도 나누어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시였습니다.

O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전거경기에서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7(1948)년 6월 1일 도산리유치원에서는 국제아동절기념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전거선수로 나가시였습니다.

맨 앞에서 달리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뒤따르던 동무가 넘어진것을 보시고 자전거를 세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신 다음 자전거달리기를 계속하시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시였습니다.

하기에 어리신 장군님의 두리에는 늘 동무들이 떠날줄 몰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실 때에 남들과 같이 언제나 면양말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걸어다니시였습니다.

옷도 남들이 입는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동무들과 꼭같이 책보를 들고다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위대한 부모님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자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부모님들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을 받으시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큰 뜻을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세심한 교양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열렬한 애국심과 원쑤놈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지니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해방후 어느날 아침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만경봉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께 나라를 찾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 싸우신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선렬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시였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혁명의 뜻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농민들의 농사일을 헐하게 해주시려고 결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5(1946)년 어느날 어리신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농촌에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용드레로 힘들게 물을 푸는 농민들을 보시면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많이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는 늘 너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장군님의 말씀을 더 잘 받들

어나가겠는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뜻을 굳건히 잇게 하시려는것은 어머님께서 늘 품고계신 소원이였습니다.

그러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께 만경대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군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부모님의 뛰여난 사격술을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어머님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자면 남녘땅에서 미제원쑤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통일의 념원을 담아 삼일포에 울리신 총소리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주 어머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

사장에 나가시여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모내기가 한창인 미림벌을 찾으시여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 모춤도 나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현실속에서 많은것을 보고 느끼시였으며 남다른 성품을 더욱 훌륭히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일제날강도놈들과 싸우는 총포소리와 백두산의 눈보라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생활의 첫자욱을 떼시였고 항일혁명투사들속에서 자라시면서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마음이 굳센 품성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일하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모습을 매일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도시와 농촌, 바다가마을들에 나가시여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훌륭한 모습도 계속 보고 느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마음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 나가실 큰뜻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한가정의 아버님으로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습니다.

해방후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몸가까이에서 일하는 한 일군으로부터 지금 전국각지에서 인민들이 대원수님께 매일과 같이 수많은 감사편지를 보내여오고있다는 말을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아버님은 태양과 같은분이

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아버님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하셨기에 글을 써도 《**김일성**장군 만세!》부터 쓰시고 노래를 불러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제일 즐겨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무척 마음쓰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은방울꽃을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창가에 비쳐드는 해빛을 따라가며 철을 앞당겨 꽃을 피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대원수님께 드리신 이야기,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딸기를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겨울철에도 아버님께 향기로운 딸기즙을 대접하시려고 애쓰신 이야기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 바치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하시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모래를 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대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들추지 않도록 집앞 길바닥에 정히 모래를 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밤에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침실 창가에 쑥불을 피워 모기떼를 날려보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어머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하시는것을 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키우시던 새에서 보드라운 털을 뽑아 어머님께 드리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한줌의 새털은 베개속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적은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대원수님의 안녕을 바라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그 마음은 하늘땅에 넘치도록 끝이 없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대로 새들을 날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느날 이른새벽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소란스럽게 들려오는 참새소리에 잠에서 깨여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뒤뜰안으로 조용히 걸어가시여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대를 작은 두 손으로 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시며 그 장대로 참새떼를 날려보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나갈 마음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겠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우리 나라를 빛내여나갈 큰뜻을 키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킬 마음을 굳게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군사놀이를 매우 즐겨하시였으며 부모님들과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던 이야기를 듣는것을 제일 좋아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이 군복을 입으시고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장에 나가시였습니다.

장군복을 입으신 어리신 장군님을 뵈옵게 된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끝없이 기뻤습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우리 인민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좋은 세상에서 잘살자면 인민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새겨들으시며 어서 커서 아버님을 받들어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센 군대로 만들어 우리 나라에 그 어떤 원쑤놈들도 덤벼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인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실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실을 뽑는 누나들의 손이 트지 않게 해주시려고 생각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갓 해방된 때여서 제사공장 누나들의 일터는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누나들의 손은 뜨거운 물에서 누에고치를 다루느라고 온통 부풀고 터갈라져있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힘들게 일하는 누나들을 보시며 아

픈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집에 돌아오셔서도 제사공장 로동자들의 터갈라진 손을 잊을수 없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밤늦도록 주무시지 않고 아버지대원수님을 기다리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오시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손이 트는데 바르는 약을 많이 구해달라고 아버님께 부탁하시였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사연을 아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을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너는 언제나 인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인민의 아들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공장에 나가서 냄새도 안나게 하고 로동자들의 손도 트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을 제일로 빛내이실 큰뜻을 억세게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 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과 렬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깊이 간직하시고 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을 더욱 굳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것을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나의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력사적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되여 행복이 활짝 꽃펴나던 우리 나라에

미제원쑤놈들은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총포소리를 들으시며 자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미제와 싸움을 벌리는 전쟁의 불길속을 또다시 헤쳐가게 되시였습니다.

이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기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고귀한것을 알게 되신 잊을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 오각별을 붙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침저녁으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들으시면서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시는 마음으로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지도에 오각별을 붙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매일같이 별을 붙여나가시는 조선지도는 전선형편과 인민군대의 전투승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동한 작전도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0월 아버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사랑하는 동생을 데리시고 장자산으로 가시였습니다.

장자산으로 가시는 그 길은 일찌기 나라를 찾으려는 큰 뜻을 품으시고 할아버님께서 걸으시고 아버님께서 걸으신 뜻깊은 길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멀고도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모조리 짓밟으려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가슴 불태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미제원쑤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미제날강도놈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거리와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두주먹을 부르쥐시며 어서 커서 미제승냥이놈들을 쳐없애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 계시면서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물고기 한마리라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린 장자산혁명사적지 부감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자산에 머물러계신 20여일간은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고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

과 인민군대를 이끄시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굳게 믿으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을 때려부시는 마음으로 공부도 군사놀이도 열심히 하시였으며 조국의 자연풍치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사놀이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생과 함께 잣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당창건 5돐이 되는 10월 10일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장자산기슭에 두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뿌리가 상할세라 보드라운 흙을 구뎅이에 조심히 넣어 정성스레 묻어주시며 이 나무가 큰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고 꼭 와보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몹시 기뻐하실거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으로 오르시거나 내려오시는 길에서 나무뿌리 하나라도 드러난것을 보시면 흙을 덮어주시고 시내가의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의 앞개울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시고 지금 미국놈들이 마구 폭탄을 퍼부어서 우리 나라 강에 있는 숱한 물고기들이 죽

고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막았던 동도 터치고 작은 물고기도 놓아주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온 강산이 불타던 그 어려운 시기에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장자산에서 조국의 나무 한그루,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시고 정성껏 보호하시였습니다.

제 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많은 사변들을 직접 보고 겪으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과 인민이 있고 전쟁의 승리가 마련된다는것을 더욱 깊이 간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인민군비행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과 함께 하늘로 기

여드는 미제원쑤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는 인민군비행사들의 투쟁모습을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힘차게 일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과 전선을 적극 원호하고있는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도 보시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며 인민군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도 직접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몸소 만들도록 하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도 보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고사령부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신심에 넘쳐 떠나가는 모습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보고 겪으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아버지대원수님께 달려있으며 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전쟁의 승리가 이룩되여가고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겨넣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를 노리는 원쑤놈들을 철저히 때려부셔야 하며 우리의 운명이신 아버지대원수님을 더 잘 모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보위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이 결심을 담아 노래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도 지으시였고 아버지대원수님께 편지도 올리시였습니다.

그리고 일기도 쓰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버지대원수님께 올리신 편지와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와 《조국의 품》,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자산에 계시면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도 생활도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신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한해동안에 두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완전히 익히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어서 주무셔야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 깊은 밤에도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선을 지휘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찌기 잘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님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성장군략전연구소조를 뭇고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포연자욱한 전선길을 생각하면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에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무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무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력사 학습을 열심히 하여 학원학생들을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략전연구소조가 조직되게 되였으며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은 더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 여기에 있는 이 구호 《아버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3(1954)년에 있은 분단총회에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온 나라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아버지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갔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부하시던 삼석소학교와 평양제4소학교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의 첫 시절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보내시였습니다.

학원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지리와 력사, 자연을 비롯하여 모든 학과목들을 깊이 배워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아프시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앞날의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월 제3분단총회에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밑에 학습을 더 잘해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학생소년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우리 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일군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은 학생들의 기본임무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학생소년들을 학습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학급모임에서 싸우는 조선의 소년단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전투이다, 원쑤와 싸워이기기 위하여, 부모의 원

쑤를 갚기 위하여 모두다 최우등생이 되자, 모두다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는 학습전투에 떨쳐 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학습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다 알고 넘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잘 도와주도록 분단위원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몇동무를 맡으시여 도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석소학교에 다니시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거의 모든 학생소년들이 산수숙제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소년들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개길 펑퍼짐한 잔디밭에 이르시자 동무들에게 여기서 숙제를 하고 집으로 가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숙제를 제때에 하고나면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에 돌아가 부모들의 바쁜 일손도 도와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날에 배운것은 그날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동무들처럼 숙제를 하지 않아 배운것을 머리에 익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학생소년들은 그후부터 숙제를 어김없이 꼭꼭 해오군 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쓰시던 학습장과 책보입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번을 서실 때 손수 불을 지피신 난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자그마한 간격과 차이도 없이 소박하게 생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학생들과 같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다니시였으며 학습장도 수수한것을 쓰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난로당번도 서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학습과 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시면서 학생소년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삼석소학교와 평양제4소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언제나 학생소년들이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분단위원장사업을 하시던 때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43(1954)년 2월초 평양제4소학교 제1분단 동무들은 분단총회를 열고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조선소년단과 소년단원들이 받아안은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여 그들모두를 아버지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들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사업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소년단원들을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키우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전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탄생기념일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4소학교 소년단원들의 이름으로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글을 새긴 축기를 올릴것을 생각하시고 소년단원들에게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은 참으로 훌륭하여 모든 소년단원들이 한결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성껏 준비한 축기를 대원수님께 드리게 되

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지도밑에 평양제4소학교 학생들이 아버지대원수님께 올린 축기입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축기를 받으시고 학생대표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부를 잘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의 축기에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르는 전체 소년단원들의 충실성의 마음이 그대로 어리여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시 《우리 교실》을 지으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자랑을 소년단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학교시절에 지으신 동시 《우리 교실》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동시를 즐겨읊으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끝없이 따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분단모임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분단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조직을 귀중히 여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이 쌓인 눈을 헤치며 분단모임장소로 오시였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혔는데 분단모임에 한번쯤이야 빠질수 있지 않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모임에 오고싶으면 오고 오지 못하면 말고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자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따뜻이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넥타이를 주머니에 넣고다니는 학생을 보시고는 붉은넥타이는 걸치레가 아니라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로운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붉은넥타이에 담겨진 깊은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게 분공도 제때에 주시고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도 많이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사자유가족을 도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전사자유가

족 할머니의 집을 찾으시여 무너진 담장도 다시 쌓고 굴뚝도 바로 세우고 땔나무도 해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이끄심속에 소년단원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청소년대오를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800만의 모든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지키는 결사대로 키워주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대오를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소년대오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많은 로작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가르치심과 방침을 주시여 청년동맹과 소년단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

전적로작들이며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신 문건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우리 혁명의 대를 튼튼히 이어나가도록 키우는것이 청년동맹과 소년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대회를 통하여 청소년사업을 높이 올려세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사로청 제7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소년교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소년교양자료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청소년교양자료전시회장에 진렬된 동화그림책을 또다시 보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동화그림책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동화그림책을 보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매 소년단분단들에 선물로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한 책과 신문도 더 잘 만들어낼수 있도록 출판사, 신문사 청사도 새

로 지어주시고 청년중앙회관도 새로 멋있게 지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일떠선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청년중앙회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언제나 청소년들을 높이 내세워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모범적인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다 풀어주십니다.

청소년조직에서 대회와 행사를 하여도 온 세상이 들썩하게 크게 조직하도록 하십니다.

○ 이 사진들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조선청년학생대표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축전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끝없는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은 세상에 자랑떨칠 아주 높은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800만의 청소년들이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다 믿음직한 총폭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800만 청소년들을 총폭탄으로 키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사로청 제8차대회와 주체83(1994)년 6월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는 청소년들을 800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원으로부터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청년대표들이 다지는 신념의 맹세를 몸소 들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청년대표들이 500만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총폭탄이 되고 리수복이 되여 당을 결사옹위하겠다고 다진 맹세가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대회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300만 소년단원들이 청년들의 뒤를 따라 당을 맨 앞장에서 보위하는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결사대로 키우는 사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시면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800만의 청소년들이 단 한발의 불발탄도 없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학생청소년들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제 2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고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경축하여 우리 나라 청년전위들은 홰불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홰불시위가 조선청년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온 세상에 떨치는 홰불시위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홰불봉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신념의 맹세를 들어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크나큰 믿음과 사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은 우리들이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들고나가야 할 영원한 홰불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담당자로 억세게 키워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강도 성간군 성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간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성간중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찾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교실과 실험실 등 곳곳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끼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생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7. 15최우등상》메달과 《〈우리 교실〉문학상》메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 전기간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한 학생들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7.15최우등상, 글짓기경연에서 우수한 작품을 낸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실**》 문학상을 주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로청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이며 별동대입니다.》

예비전투부대란 필요할 때 동원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고있는 전투부대를 말합니다.

별동대란 기본부대와 떨어져 특별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대오를 말합니다.

이 영예로운 칭호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

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청년동맹을 영원히 아버지대원수님의 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로청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여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동맹에 수여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사로청대표자회는 사로청창립 50돐을 뜻깊게 경축하던 주체85(1996)년 1월 17일에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에서는 사로청의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사로청대표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로청대표자회 페막회의에 참석하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청년동맹에 수여해주시

였습니다.

참으로 청년동맹에 아버지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것은 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크나큰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의의깊은 사변이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있는 이 구호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청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소년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느해 따뜻한 봄날 4월15일소년백화원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또 어느날에는 한 소년단원의 노래를 들으시고 민요를 아주 잘 부른다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이 발휘한 자그마한 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내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어린 소년단원이 올린 편지까지 일일이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담긴 회답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 어려운 일터로 앞장서 달려간 형님, 누나들의 소행도 기특히 여기시고 적극 내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칭호와 영예를 안겨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상이 모셔진 청년전위초상휘장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는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십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정해주신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뿐만아니라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신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믿음과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는 곳마다에 우리들이 마음껏 배우며 뛰놀수 있는 궁전과 소년단야영소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지연소년단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거리에 세워주신 웅장화려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경치좋은 송도원바다가에 세워주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들의 배움터, 놀이터입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다 건설되자 몸소 현지에 오시여 만점짜리 집이라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하나의 기념탑이 솟아났다고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92(2003)년 7월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콤퓨터를 다루는 솜씨를 친히 보아주시며 콤퓨터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최신식콤퓨터와 여러대의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외진 산골마을과 섬마을의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시고 사랑의 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승용차, 통학배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철따라 새옷과 학용품도 마련해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에게 줄 학용품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줄 선물옷은 제일 좋은것으로 맵시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물옷생산을 친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선물옷차림을 한 학생들을 불러 교복의 형태와 색갈, 무늬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줄 회상기책을 만들어도 청년용, 소년용으로 갈라서 나이에 맞게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동화그림책도 더 많이 만들어주도록 하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쳐있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끝없는 사랑과 은정속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행복과 기쁨만을 누리며 앞날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튼튼히 자라나고있습니다.

제 3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이 판에 모신 사진은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세계정치원로이시였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끝없는 행복과 사랑을 안겨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우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란 새 세대들로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정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공부도 잘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도 지니며 몸과 마음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

려 모두다 영예의 붉은기학급, 영예의 붉은기학교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본새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순결한 인간이 되여야 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300만의 결사대, 선군시대의 리수복이 되여야 합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지켜주신 성스러운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소학교 소년단원용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해설은 나어린 소년단원들의 특성과 교육내용에 맞는 도록판들을 선정하여 해설하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
도 록 해 설

(소학교 소년단원용)

재판

집 필 리정윤

편 집 황상국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김경애

내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5일

ㄱ—15452ㅂ 값 1 0 원